

“리브가와와의 만남”

창24:10-27

선택의 윤리학(Ethics of decision)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업과 배우자, 그리고 종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거의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다시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고통스러운 일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앞이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처녀가 있습니까? 누구 딸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사 이삭의 신부를 만난다고 해도 어떻게 알아볼까? 모든 것이 막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막연하고 막막한 선택의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도가 우선입니다.

“(창 24: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에 대한 첫째가 성령이고 둘째가 기도였습니다. “(요 16:7-8)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약 4:2)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싸우고 죽이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이မ် 바운즈는 몸이란 말과 신체라는 말이 동의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당연히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IQ 좋은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매 선택의 순간, 그 어떠한 인간적 행동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얻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얻습니다. 지성인들 중에 구체적인 것은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성과 합리를 내세운 오만입니다. 구체적이란 말은 목적이 명확하다는 뜻이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3.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종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를 이삭의 신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 곳이나 가서 만나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부가 될 여자를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데서나 기분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해 버리는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4. 기도응답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창 24:15-16)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기도 대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여기 구약에서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주고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더위에 지친 낙타에게 물을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인데 그 일을 다 해 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처녀를 만나기는 했으나 신부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 보인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정직입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삭의 신부 구하는 장면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기분입니다. 참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밥을 주어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기 위해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합니다. 종의 말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무엇보다 종에게 먼저 적용된 말씀이기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놀랍게 연구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시제가 무엇이며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연구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호 8:12)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5. 응답은 말씀에 결단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 이후 49 절은 리브가나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창 24:49)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온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소식과 이삭의 이야기만 들려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브가가 누려 온 모든 삶을 포기하게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설교를 단순히 ‘좋은 말씀이나 혹은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하고 힘주는 소리’로 오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익숙한 곳이 아닌,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말씀과 함께 하는 삶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 태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늘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막상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신부 집에서 리브가를 보내려고 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언제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더라도 적어도 열흘 정도는 자기들과 함께 있어 석별의 정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창 24:54-56)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혼사도 이루어졌고

몇 일 정도 더 있다가 대접도 좀 받고 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참 정도 없고 인간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종은 이렇게 리브가를 만난 것이 예외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이렇게 당장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금방 승락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럴 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로보암 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할 말만 하고 분명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다른 선지자가 자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에 현혹되어 음식을 얻어 먹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사람은 여유를 가지면 안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여유를 가지고 게으르게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세월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을 후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혼신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일 뒤에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일이 잘된다고 해서 여유를 가졌다가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결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리브가를 곧장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리브가가 대단합니다. “(창 24: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정말 준비 된 이삭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 종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모든 선택의 과정에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응답의 순간까지 지체하지 않고 오직 명하신 길로 걸어가는 능동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에게 혼란과 위기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인간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앞에, 기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감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 말씀묵상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에 이루어가셨는지, 하나만 선택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4. 지난 한 달 동안 주일설교를 통하여 받은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열매를 경험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5. 외부적 환경이나 인정에 마음을 빼앗겨 나의 결단이 지체됨으로 기도응답의 마무리가 어그러진 경우가 있으시면 나누어 주십시오.
6. 4 월 6 일부터 7 월 14 일까지 목장별 100 일 성경통독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완독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논의해 보시고, 합심하며 기도하십시오.